

곡성군 귀농귀촌인 3000명 채울 수 있을까

2013~2018년 3000명 목표

지난해까지 2224명 유치

올 700명 유치 다양한 지원책

곡성군의 귀농귀촌인 3000명 유치 목표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2013~2018년 귀농귀촌인 3000명 유치’ 목표에 따라 올해 귀농·귀촌인 700명을 곡성으로 유치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224명의 도시민이 곡성에 정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곡성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은 ▲2013년 112세대 173명 ▲2014년 78세대 157명

▲2015년 395세대 681명 ▲2016년 403세대 819명 ▲2017년 298세대 567명 등으로 2397명에 이른다.

수치로만 보면 올해 700명의 도시민의 발길을 곡성으로 돌릴 경우 3000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당장, 지난해의 경우 유치 목표(900명)를 채우지 못했다. 곡성군은 애초 900명의 도시민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98세대 567명(목표 대비 63%)만 곡성으로 귀농·귀촌했다. 귀농인은 150세대 255명, 귀촌은 148세대 312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 곡성으로 옮긴 경우가 126세대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에서 곡성으로 이주한 도시민들이 102세대로 뒤를 이었다. 전남·북(28세대), 경상(30세대), 충청(7세대), 제주·강원(5세대)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귀농·귀촌인이 175세대로 가장 많았고 20~30대가 137세대로 2위를 차지했다. 60대는 115세대, 40대는 96세대, 70대 이상은 44세대로 나타났다.

곡성군은 특히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정보취득의 어려움(28%), 까다로운 지원 절차(20%), 미흡한 지원금(17%)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은 점을 고려해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곡성군은 이를 위해 ▲귀농창업농 중점 육성 ▲주거환경 개선 ▲귀농귀촌 교육 운영 내실화 ▲지역주민과 융화합 교류 확대 ▲귀농귀촌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등 5개 추진과제를 정하고 6억9000만원을 투입, 2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면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자금의 경우 7500만원

까지, 토지 구입 등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연계, 지원한다. 가구당 500만원 내에서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도 5년 이상으로 체결하도록 돕는다. 이미 5곳에 조성된 귀농인의 집도 3곳을 추가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머무르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신규농업인 육성지원과 주민과의 융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귀농귀촌인 유입이 중요하며 더 많은 귀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im@



고흥군 농업용 드론 실증단지 구축 협약

고흥군이 농업용 드론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팔을 걷어붙였다.

29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4일 전남테크노파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아세아텍과 ‘농업용 드론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농약살포용 드론 표준화 및 매뉴얼을 개발, 지원하고 전남테크노파크는 드론 실증단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아세아텍은 드론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및 정밀농업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고흥군은 드론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유지하고 실증 수요처를 선정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흥군이 농업용 드론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서 드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특히 농촌일손의 해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구례군 순천대와 협약

청년 창업자 역량강화

맞춤형 지원 나서

구례군은 최근 군청에서 순천대 창업지원단과 협약을 맺고 청년 창업자 역량강화와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례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순천대로부터 창업지원단의 전문지식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원받기로 약속 받았다.

또 구례군민은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창업교육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출장 창업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 지역 실정에 맞는 창업 강좌를 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군에서 추진하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구례군은 지난해 12월 인구 3만명 회복을 목표로 청년 사업가 육성 등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이 포함된 ‘구례 2030 인구정책’을 수립했지만 인프라가 없어 난항을 겪었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년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례군은 동의대학교와도 산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보성 한국차박물관에서 차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보성군 제공〉

다례 배우고 차문화 체험...보성 한국차박물관 인기

지난해 14만여명 다녀가

차 만들기 프로그램 호응

보성 한국차박물관이 차 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29일 보성군에 따르면 한국차박물관은 차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의 인기로 지난해 1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차박물관은 차에 대해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체험장의

다양한 차문화 프로그램은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이 몰리며 5000여명이 다녀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한국차박물관 내 한국차생활실의 경우 관광객 3600여명에게 다례교육 및 차시음 프로그램을 마련, 제공했다.

다례교육은 차를 맛있게 우려보고 예절을 배우는 체험으로 27회에 걸쳐 1100여명이 참여했고 2500여명도 박물관에서 보성차를 시음했다.

차박물관 내 ‘차 만들어보는 곳’은 지난해 5월부터 보성군 직영으로 운영되며 차박물관 및 대한다원 등을 연계한 체험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한 차음식·차제품·블렌딩 만들기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녹차떡볶이, 홍차스콘 등 차음식 만들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녹차 천연화장품 만들기는 중·고등학생에게 인기를 끈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보성군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차문화 체험을 통해 즐거움이 함께 하는 시간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최정희(가운데) 구례군 부군수가 지역 주요 사업장을 둘러보며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최정희 구례군 부군수 65곳 현안사업장 점검

최정희 구례군 부군수가 취임 뒤 지역 주요시설물과 사업장 등 65개소를 돌며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29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 부군수는 지난 9일 구례를 매전도서관 이전 건립 대상지를 시작으로 8일간 목재문화체험

장, 지리산악사문화체험단지, 자연드림파크 2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 핵심 사업현장을 돌아보며 진행 상황을 살피었다.

최 부군수는 “현장 행정을 펼쳐 구례가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투자가치 좋습니다. 010-3605-5000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매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 장기투자 최적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 분할매매가

거문도,토지

- 여주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